

지역 매아리

정읍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로 시민 안전 확보 나서

정읍시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금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안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봉천 일대는 폭우에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 바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10억 6천만 원을 들여 정읍국유림관리소 앞 정읍천에서부터 금봉동 성결교회 앞 금봉천 중류까지 약 1.09km를 정비에 나섰다.

현재 내장 1교와 내장 2교 정비를 완료했고, 하천 폭을 10m에서 15m로 넓혔다. 이어 내장 3교(대림아파트 앞 국도 29호선 내)는 13m의 박스 교량 설치 공사가 진행중이다.

내장 3교에 PC박스 슬라브를 설치하고 있고 오는 11월에 내장 3교와 하천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3억 원을 들여 대림아파트 앞 오거리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중인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 또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6일 여성문화관에서 부흥플레이스(주)와 정경물산(주) 등 2개 기업·기관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정읍새일센터와 여성친화일촌기업은 3년간 여성의 취업 방안 논의와 기업의 여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서게 된다.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들은 센터로부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인재 알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새일여성인턴십 지원(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에서 기업 관계자는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이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새일센터는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기업체와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며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ASF 철통 차단에 '총력'

##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24시간 운영 돌입

정읍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지난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6건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종사자와 출입 차량에 대해 전면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정읍시는 유진섭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나섰다.

상황총괄반과 방역대책반, 통제초

소반, 환경정비반, 인체감염대책반, 홍보반 등 6개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을 하게 된다.

시는 지역 내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행사와 모임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에 나서는 등 소독·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양돈 농가와 축산 진출입로를 순회 소독하고 양돈 농가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 지역 내 유입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사전 방역을 통해 질병 유입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도 가급적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 하며 농가는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 지역에서는 123개 농가가 30만 7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용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내년에도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향한 힘찬 도약

### 고창군, 문화재활용사업 3건 선정 쾌거

고창군이 내년에도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2020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에 총 3건의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4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문화재 야행'과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3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안았다. 이를 통해 펼쳐지는 역사문화 관광 도시를 향하는 고창군의 행보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 야행'은 고창읍성과 고

창오거리당산재보존회 등 고창이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유산을 활용해 진행되는 아간 문화재 활용사업이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기원의 거울'을 비롯해 '정화수와 치성', '민속대놀이' 등은 지역민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타 지자체 축제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선운사 내 문화재 체험, 강연 등 자연 속 산사문화와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입소문을 타고 인근 도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참여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첫 선을 보이는 '생생(生)문화재 사업'은 '무정읍성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다'로 기획되고 있다.

무정읍성을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총무공의 눈물'이라는 마당극을 선보일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역 전문 인력 육성과 참여로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다음 세대 위한 군민 의지 전하다

###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건의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위원장 이영택)는 지난 26일 새만금개발청 기본계획(MP) 담당 사무관과 함께 새만금 MP 변경에 대한 신규사업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 MP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새만금 사업 최상위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 등을 반영하여 변경 추진 중이다.

이날 모인 새만금지원협의회 위원들은 지난 8월의 제3차 회의에서 발결된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에 건의된 신규사업 22건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관광레저용지와 명소화사업부지의 공공주도 추진을 통한 조기 완성,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배수지 등 인프라 확충, 새만금사업의 피해가 큰 부안군민의 생활상을 감안

하여 균등한 시설 설치 및 추가적 사업량 배분 등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 전용회 사무관은 "많은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다"고 인사하며 "현재로서는 MP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이지만 주민피해 해소 노력 및 새만금과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활동 중"이라며 인프라 추가구축을 위해 함께 행동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영택 위원장은 건의를 마무리하며 "원활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에 건의된 신규사업 22건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는 앞으로 새만금 유관기관에 기본계획 변경 건의를 지속해나갈며 부안군과 새만금의 공동발전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어려움 겪는 도내 농가 돕기 '앞장'

### 고창군청, 소비문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장수지역 사과 7톤 구매

고창군청이 '사과창고'로 바뀌었다. 사과 수백 상자가 청사를 가득 채웠다. 상큼함 사과향이 청사 곳곳에 퍼지며 딱딱했던 행정기관에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미소 짓고 있다.

고창군이 가격 하락과 소비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지역 사과 농가 돕기에 나섰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장수지역 사과 사주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고창군과 고창군농업인단체는 장수군에서 사과 7톤(14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국내외 시장에서 '명품 사과'로 통하는 장수사과는 맛은 물론 색깔과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누려왔다.

그러나 올해 가을잠마와 제13호 태풍 '링링' 등 잇단 기상악화로 작황이 늦어졌고, 여기에 이른 추서로 판매 적기를 놓치면서 가격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우리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사과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의 사과 사주기 캠페인이 농민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고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부안군, 세계잼버리 서포터즈 1기 위촉식 가져

부안군은 지난 26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회를 위해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잼버리 붐 조성 등을 위한 2023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포터즈 1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포터즈 1기는 공개모집을 거쳐 고등학교,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위촉장 수여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잼버리와 관련된 다양한 군정소식, 언론보도, 행사 등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잼버리

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서포터즈에게는 잼버리 관련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되며 세계스카우트 정보제공을 비롯해 우수자 시상, 서포터즈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 중심의 2023 부안 세계잼버리 홍보 등을 통해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종 잼버리 행사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잼버리에 대한 군민의 주인 의식 함양 및 붐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ndi Wine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E | 375ml 2ea/13%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